



6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6.25	6.18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90.12	1,377.77	↑ 0.90	↑ 25.93	785.17 '20/07/27	1,390.12 '21/06/25
인니	자카르타종합	6,022.40	6,007.12	↑ 0.25	↑ 0.72	4,842.76 '20/09/24	6,435.21 '21/01/13
인도	SENSEX	52,925.04	52,344.45	↑ 1.11	↑ 10.83	34,842.10 '20/06/25	52,925.04 '21/06/25
중국	상해종합	3,607.56	3,525.10	↑ 2.34	↑ 3.87	2,961.52 '20/06/29	3,696.17 '21/02/19
	심천종합	2,442.08	2,378.61	↑ 2.67	↑ 4.84	1,939.12 '20/06/29	2,468.66 '21/02/19
홍콩	H	10,878.45	10,646.39	↑ 2.18	↑ 1.30	9,281.52 '20/09/29	12,228.63 '21/02/17
	항셱	29,288.22	28,801.27	↑ 1.69	↑ 7.55	23,235.42 '20/09/25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302.84	3,267.93	↑ 1.07	↑ 14.94	2,093.48 '20/06/29	3,302.84 '21/06/25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6.25	6.18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25	2.19	↑ 5.90	↓ -33.10	2.20 '21/01/15	3.60 '20/07/23
인도네시아	6.54	6.54	↑ 0.60	↑ 65.50	5.89 '20/12/30	7.24 '20/07/01
인도	6.03	6.01	↑ 2.20	↑ 16.40	5.76 '20/07/10	6.25 '21/03/10
중국	3.10	3.15	↓ -5.40	↓ -4.80	2.85 '20/07/01	3.36 '20/11/19
한국	2.10	2.04	↑ 6.70	↑ 38.00	1.28 '20/07/30	2.20 '21/06/0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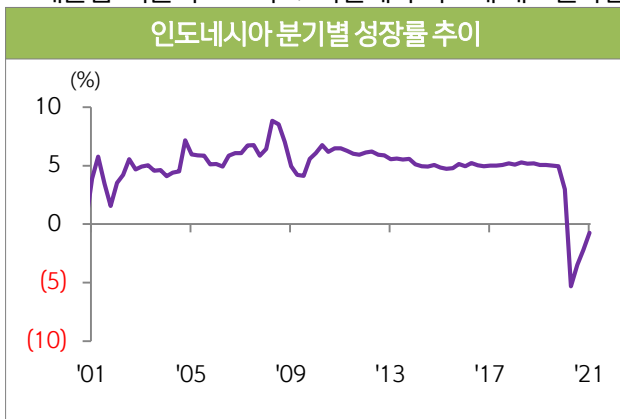
구분	6.25	6.18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3,012.00	23,010.00	↑ 0.01	↓ -0.37	22,944.00 '21/06/11	23,206.00 '20/10/06
달러-루피아 (IDR)	14,425.00	14,375.00	↑ 0.35	↑ 2.67	13,895.00 '21/01/04	14,900.00 '20/09/28
달러-루피 (INR)	74.19	73.86	↑ 0.44	↑ 1.53	72.33 '21/02/24	75.67 '20/06/25
달러-위안 (CNY)	6.46	6.45	↑ 0.05	↓ -1.09	6.37 '21/05/28	7.08 '20/06/29
달러-원 (KRW)	1,127.66	1,132.19	↓ -0.40	↑ 3.79	1,081.81 '20/12/04	1,205.68 '20/0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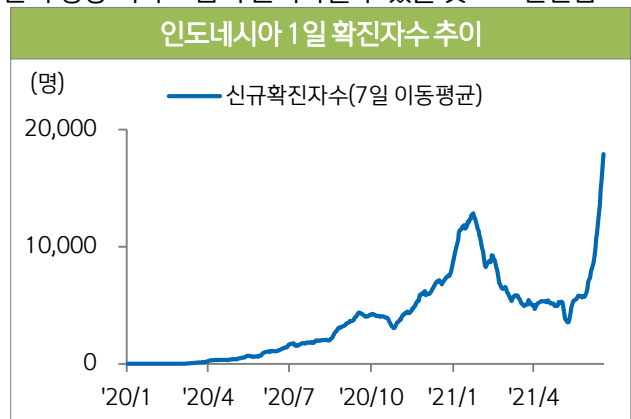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하반기 경제 전망(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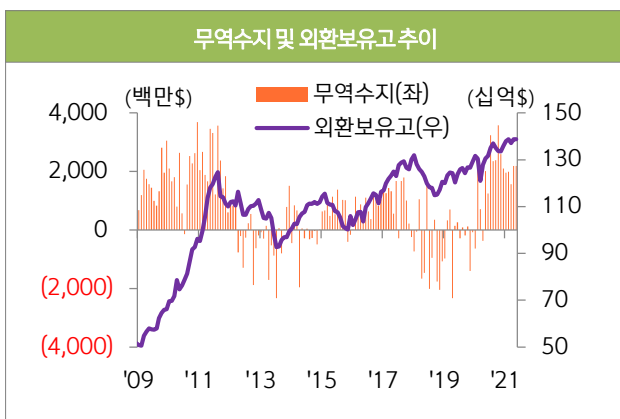
- ▶ **인도네시아 경제는 연초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대규모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1분기에도 (-)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 백신 접종 진행 및 경제 활동 재개 등을 통해 2분기부터는 제조업PMI와 소비자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음.** 2분기에는 지난해 2분기의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전년대비 (+) 성장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6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재차 급증하고 있어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 하반기 인도네시아 경제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지가 가장 큰 이슈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22년 1분기까지 집단 면역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무디스 등에서는 '23년에서야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되기까지는 상당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장세가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주요 기관들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인도네시아의 '21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올해 인도네시아 연간 성장률 전망을 4.5%로 하향 조정함.**
- ▶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테이퍼링 검토도 본격화될 예정임.** 당사는 하반기 테이퍼링 검토 후 '22년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과거 '13년 테이퍼먼트 당시에는 인도네시아가 Fragile 5로 꼽히며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나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빠른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 테이퍼링 검토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양호한 수출에 기반하여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면서 외환보유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美 연준도 시장과 소통하며 점진적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임.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빠르게 해소된다면 하반기 성장 회복 흐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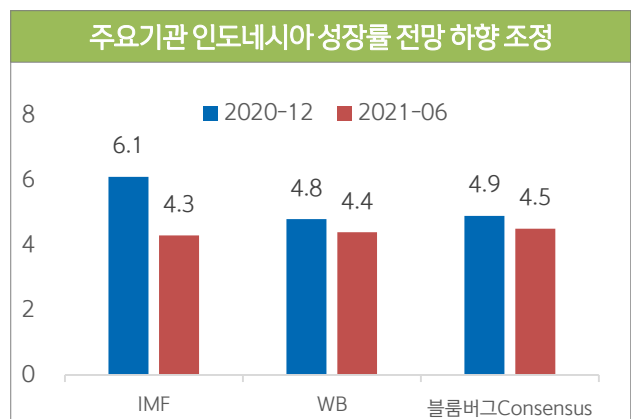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요 뉴스





법경제연구소, 인도네시아 2분기 성장률 2~4% 수준으로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6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거리두기 시행으로 산업 활동이 정체되면서 2분기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대비 부진할 수 있고, 3분기까지 관련 산업들이 지장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발표되었음

- 인도네시아 법경제 연구소의 Bhima Yudhistira 연구원은 6월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취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이 둔화된 영향으로 2분기의 전년대비 성장률이 2~4%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정부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인 7%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으로 소규모의 공공 활동 제약(PPKM)이 시행됨에 따라서 산업 부문과 대중들의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부분적인 활동 제약 조치들이 이뤄지면서, 은행에 그냥 돈을 맡기고 사업을 위한 투자활동은 멈춰두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평가하였음.
- 감염자수의 증가는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대중들의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6월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재차 100pt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여기에 제조업체들도 부진할 국내 수요에 맞춰 생산량을 감축 조절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조업 PMI도 50pt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거기에 관광산업 분야와 관련한 호텔, 식당, 운송업체 등은 3분기까지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음.
- 대규모 소매 상점들이 다시 폐쇄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파산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중저 소득층의 경우, 빈곤층으로의 전략 우려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음.
- 정부의 재정 부담 심화로 인해서 사회 안전 보장 관련 집행 부담이 커지면 국가 경제 성장에 동원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은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장률 개선에도 부정적임. 6/18까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 회복 기금의 집행 금액은 226.63조 루피아(32.4%)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 위해 태평양 국가들과 협력 모색



❖ 요약 및 시사점

올해 10월 개최되는 Pacific Exposition 2021에 인도네시아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 및 투자 유치를 위해 태평양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 지난 1회 행사보다 더 큰 규모의 수출, 투자 거래를 따낸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올해 10/27~10/30 기간에 개최되는 제 2회 Pacific Exposition 행사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무역, 투자, 관광 부문의 전시회인 해당 행사는 태평양 지역 연안의 인도네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들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2019년 7월에 오클랜드에서 처음 개최되었음.
- 제 1회 행사 때에는 인도네시아는 간병 분야, 냉동/냉장 참치, 커피, 수공예제품, 차량 부품 등의 상품들과 MICE 등의 서비스와 관련한 7,0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거래를 따내는 데 성공하였었음. 뉴질랜드/사모아/통가 지역을 담당하는 인도네시아 Tantowi Yahya 대사는 제 2회 Pacific Exposition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 내의 경제 협력을 통한 기회를 잡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였음.
- 제 2회 행사에는 Papua, West Papua, Maluku, North Maluku, North Sulawesi, East Nusa Tenggara 등 6개 지역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19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관광 및 무역 촉진을 위해 참가할 예정임. 이들 6개 지역은 태평양 일대에 맞닿아 있으며 인종적 구성도 폴리네시아인이나 멜라네시아인들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협력 방안을 찾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호함
- 올해 제 2회 행사의 주제는 '이제는 태평양 시대(It's Pacific Time)'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태평양 지역의 희망적인 바람을 반영하고 있음. 무역 및 산업 협력을 찾는 것에 더해 태평양 지역의 무역, 투자, 관광, 보건, 어업 등의 분야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될 예정임. 해당 포럼에 관련 부처 장관들과 관료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서 인도네시아와 태평양 일대 국가들간의 협력을 모색할 계획임.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약이 있긴 하지만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 루피아 상당의 투자, 무역 거래를 따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인도네시아 관광부, 백신 기반 발리 여행 재개를 고심



❖ 요약 및 시사점

백신을 접종한 것이 확인되는 사람들에 대해 발리 지역의 관광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관광부는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의 확진자수 급증으로 고심이 깊어지는 상황.

관광업이 지역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들의 경우 백신 접종 및 확진자수 통제가 전제되어야 경제 회복이 가능한 상황

- ▶ 관광 및 창의경제부에서는 발리 지역의 관광 산업 회복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기반한 발리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음. 발리 지역의 관광 재개 검토는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해서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고 장관은 말하였음.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내에서 발리로의 여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리 주지사와의 협의하에서 진행할 것이며, 백신 접종에 기반한 여행으로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 관광부에서는 관계 부처들의 지원을 통해 진행 중인 'Work From Bali' 제도에 대해 유관 부처의 도움으로 엄격한 보건 관리 지침 속에서 발리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 있었다면 관계 기관과 부처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명하였음.
- ▶ 관광부는 발리지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조만간 Borobudur, Magelang 지역으로 백신 기반 관광 재개를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는 것이 관광 부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하였음.



인니 중소기업부, 2024년까지 3천만 중소기업을 디지털 생태계에 편입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자상거래 및 SNS 플랫폼을 이용한 디지털 생태계에 편입하여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삼기로 하였음. 이를 위해 현재 1,350만 수준인 디지털 생태계 참여기업을 3천만까지 높일 계획

-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4년까지 3천만 중소기업들을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중소기업부가 발표하였음. 현재 인도네시아 디지털 생태계에는 1,350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정부는 중소기업들 가운데 농업 부문의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통적인 시장 및 판매자들을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음. 현재 14,000여 개의 전통 시장들이 있고 여기에 1,260만명의 거래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디지털 생태계로 편입시키면 3천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크게 다가서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인도네시아 중소기업부는 소규모 판매장과 노점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도 발표하였음. 이러한 키오스크형 판매자와 노점들의 숫자만 하더라도 2,670만에 달한다는 것이 중소기업부의 분석임.
- 중소기업부 Masduki 장관은 디지털화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이 판매 시장을 넓히고, 상품 거래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중소기업들이 소셜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대형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품질 개선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개선된 품질에 힘입어서 해외 시장으로의 판매까지도 할 수 있게 되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음.



인도네시아, 캐나다와 무역 협정 논의 개시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캐나다 무역부와 CEPA 협상을 위한 첫 작업에 들어갔음. 양국간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확대하여 인도네시아산 상품, 서비스를 캐나다에 수출할 기회를 늘리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나갈 계획임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캐나다 무역촉진 및 대외무역 장관은 인도네시아-캐나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ICA-CEP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음. 양국간에 ICA-CEPA 협상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양국간 무역, 투자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나간다고 무역부 장관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였음. ICA-CEPA 협상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와 캐나다 사이의 69년 외교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하였음.
- 협상의 주요 방향은 양국 사이의 경제, 무역, 투자의 성장을 도모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관은 밝혔음. 이러한 노력은 양국이 글로벌 지정학적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서 상호 전략적으로 동등하고 중요한 동반자로서 대외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코로나19 이후에 발생하는 수출 기회를 잡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서 잠재적인 무역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국가들과 국제 무역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음.
- 무역 협상은 인도네시아산 상품들이 북미 지역으로 더 많은 수출 침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노력이며 현재는 남미의 칠레 정도만 인도네시아가 무역 협정을 체결해두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북미지역의 비중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의 일환임.
- 무역부 협상 담당을 주관하고 있는 Djatmiko Bris Witjaksono 국장은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술적인 요소들을 먼저 점검할 것이라고 하였음. 초기 협상은 2021년 말 전에는 시작할 예정임.
- 올해 1분기에 양국은 협상과 관련한 잠재적인 이슈 사항에 대한 폭 넓은 온라인 논의를 진행하였음. 양국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 범위, 투자 및 경제 관련 협력 방향 그리고 양국의 협상과 관련한 법적 제도적인 내용들에 대한 것이었음. 인도네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지역들과 CP TPP를 통해 이미 북미 지역 국가들과 협의한 내용에 덧붙여 개별적인 협약들을 만들어가는 경쟁을 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의 32위 수출 상대국으로 7.9억 달러 상당을 2020년에 수출하였고, 16위 수입국으로 16억 달러를 수입하였음. 지난 5년간 캐나다는 인도네시아의 광업, 호텔, 요식업 및 물류업종에 대해 7.2억 달러 상당을 투자해왔음.

(출처 : Antara News)



투자부 장관, 2023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생산 시작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투자부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배터리 국영회사(IBC)의 합작으로 이뤄지는 배터리 공장 투자에 대해 승인하고, 7월말 8월초부터는 첫 삽을 떼서 2023년 하반기 배터리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및 중간재가 아닌 완성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방향으로 장관은 설명하였음

- 전기차 배터리의 건설이 7월 말부터 진행되어 2023년이면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투자부 장관이 발표하였음.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대한민국 LG에너지솔루션과 인도네시아 배터리 회사(IBC)의 컨소시엄으로 건설되는 것으로, 1단계 구축에서는 10GWh 용량의 생산을 목표로 건설하는 것임. 장관은 2023년 말이면 공장에서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면서 이것은 인도네시아의 배터리 생산 핵심 국가로의 발전 도전 과제의 첫발이라고 발표하였음.
- 장관은 우선 투자부에서 배터리 공장의 건설과 관련한 서류 승인 작업은 6월이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건설 시작은 7월말이나 8월초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장관은 전기차 생태계와 관련하여 일단은 하류부문의 생산에 집중하고, 이후 상류부문의 개발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인도네시아는 중간재 중심의 수출을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하였음. 중간재 정도로만 원자재를 가공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완제품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임.
- 장관은 글로벌 전체로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산업과 관련한 투자규모가 상당하고 이번 투자는 98억 달러(142조 루피아) 규모로 인도네시아의 일자리 창출법 개정 이후 최대의 규모이며 광업, 제련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및 재활용까지의 전 산업 과정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하게 되는 대형 프로젝트라고 강조하였음.



투자부 장관, 인도네시아가 세계 선두 배터리 생산국이 될 것이라고 천명



❖ 요약 및 시사점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배터리 관련 산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였음. 보유 자원을 단순히 수출하는 기존의 원자재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향후 지속적으로 확장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수출 국가로서 성장하기 위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확인

- 인도네시아는 정부가 전기차 관련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국가가 될 것이라고 투자부 장관이 말하였음. 지금이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생산국가가 될 기회이며, 단지 발리가 있는 관광국가 정도가 아닌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산업화된 국가로 올라설 기회라고 장관은 강조하였음. 투자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현재는 목재, 금, 생선, 석탄 등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로만 알려져 왔고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국가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음.
- 전세계 니켈 매장량의 25% 정도가 인도네시아에 있고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니켈, 망간, 코발트 등의 광물들이 모두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어 배터리 생산에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 유럽의 경우 2030년까지 전체 차량의 70%를 화석연료대신 재생에너지 차량으로 변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부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계획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기차 및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관련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조율하고 있음. 첫번째 노력은 2019년 10월에 니켈 원광석의 수출을 금지한 조치임. 인도네시아 정부는 또한 세금 감면이나 기계류 수입 허가 간소화 등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음